

##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 부사의 비교 —

김경연\*

### 1. 서문

본 논문에서는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중국어 명: 羅約翰, 1842-1915)가 번역하여 1887년에 문광서원에서 출판한 『예수성교전서』에 수록된 마가복음인 「말코복음」<sup>1)</sup>(<그림1>)의 대역 중국어 성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존 로스는 1872년 만주 지역에 파견되어 온 스코틀랜드(북영국)장로교회<sup>2)</sup> 출신의 선교사이다. 로스의 성서 번역은 많은 이들의 조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의 매부이자 동료 선교사인 존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와 조선어 번역자들이 그러했다. 1882년에 최초의 조선어 번역 성서로서 누가복음을 봉천(奉天, 오늘날의 심양[瀋陽])의 문광서원에서 출판했다. 그 후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을 번역하여 『예수성교성서』로 출판했다. 이들 복음서는 『예수성교전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출판되었다. 『예수성교전서』는 수정 번역을 거듭한 4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루어졌다. 성서 번역 과정은 이응찬(李應贊), 서상륜(徐相崙) 등 조선인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서를 대역으로 하여 초역 원고를 만들고, 로스가 이를 중국어 성서와 함께 영어 성서, 그리스어 성서와 비교하였다.<sup>3)</sup>

‘로스역’의 문체는 알기 쉬운 구어체이며, 표기는 한글 전용문으로써 한

\* 간사이대학교대학원(関西大学大学院)에서 한국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음. [kyonyon@gmail.com](mailto:kyonyon@gmail.com).

1) 편의상 ‘로스역’이라고 칭한다.

2) Scottish United Presbyterian Mission

3) J. Webster,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 D.”,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 Free Church of Scotland* 46 (1915), 394.

자를 읽지 못하는 민중을 주 독자로 선정했다. 특히 조선인 번역자들은 모두가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므로 초기 번역의 방언을 교정한 후기 번역과 비교한다면 평안북도 방언의 자료로써도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를 깊이 이해하여 중국어 학습서인 *Mandarin Primer*를 1877년에 출판하고,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The Manchus or The Reigning Dynasty of China*를 1880년에 출판하였다. 이 가운데 *Mandarin Primer*는 그와 같은 때에 출판한 조선어 학습서 *Corean Primer*의 기본이 되었다. 4) 이처럼 로스는 중국어와 조선어에 능한 유일한 영어 모국어 화자이며 그리스어를 읽는 번역자였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원문을 충분히 숙고하여 중국어 성서로부터 어휘를 채취하여 조선어 성서를 번역했다고 보인다.

로스역은 영어 성서와 그리스어 성서를 사용하였는데, 각각 개정역 (Revised Version)<sup>5)</sup>과 팔머(E. Palmer) 편집본인 것으로 알려진다.<sup>6)</sup> 그러나 중국어 성서 가운데서 주로 사용한 역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로스역 본문에서 사용된 부사를 두 중국어 성서와 비교한다.

로스역의 어휘는 이후의 조선어 성서에 계승되어 현재의 성서에 남아있다. 따라서 로스역이 주로 사용한 중국어 성서를 알아본다면 앞으로의 성서 번역에서 어휘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 2.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에 관해서

본 연구는 로스역의 대역으로 주로 사용된 중국어 성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스역에서 사용된 부사를 두 중국어 성서와 비교한다.

로스역과 비교할 중국어 성서는 문어체로 번역된 두 판본으로 한다. 하나는 메드허스트(W. H. Medhurst; London Missionary Society)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번역 성서이다. 메드허스트 등은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대표 선교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을 분담한 후 다양한 지방 언어와 다양한 문체로 번역했다. 그 번역 성서 가운데 대표적인 판본이 1852년에 묵해서관(墨海書館, 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에서 출판한 신약성서이다. 이 번역본이 로스역의 중국어 성서 저본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

4) John Ross,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머리말 중: "The lessons, matter, arrangement and number., are those of my Mandarin Primer, where the English is rendered idiomatically. The translation is also on the principle of that Primer."

5) 1881년에 신약성서, 1885년에 구약성서를 출판하였다. 편의상 'RV'라고 칭한다.

6)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 (1992), 123-127.

만열, 옥성득은 『대한성서공회사 I』(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49에서 “1852년에 한문으로 번역된 대표자역본(Delegates’ Version)인 『新約全書文理』를 대본으로 하여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번역하고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히로 다카시(廣剛)는 “이것은 기독교사에서 로스역의 저본은 대표역본이라고 기술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의외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며, 이 결과는 저본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sup>7)</sup> 며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히로 다카시는 로스역에서 검출된 한자어 체언, 그리고 한자어를 어근으로 하는 용언과 부사를 두 중국어 성서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다른 역본이 좀 더 일치도가 높았다고 했다. 즉, 대표 역본과 완전 일치하는 어휘가 2.7%인데 비해서 다른 역본은 3.1%였다고 보고하면서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재고의 여지를 시사하고 있다. 히로 다카시가 조사한 부사는 한자어 어근의 부사로써 20회에 불과하므로 그 조사량이 부족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로스역 전체에 사용된 모든 부사를 조사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브리지맨(E. C. Bridgman)<sup>8)</sup>과 컬버트슨(M. S. Culbertson)<sup>9)</sup> 등은 미국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1861년에 美華書局에서 신약성서와 1863년에 신구약성서를 출판했다. 미국위원회 출신인 이들은 대표자 위원회가 절대 신의 명칭을 ‘上帝’로 한 것에 반대하여, ‘神’으로 수정하기로 정하고 대표자 위원회를 탈퇴한 후, 그들의 성서 번역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어휘 가운데 하나로써 ‘Holy Spirit’은 ‘聖神’을 쓰지 않고 ‘聖靈’으로 한 점이 다르다.<sup>10)</sup> 로스역은 ‘성령’을 사용하여 후자와 같은 선택을 했고, 절대 신의 명칭은 중국어로는 ‘上帝’<sup>11)</sup>를 조선어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을 사용했다. 1882년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하느님’을 사용하였고 이후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하였다.

사용하는 중국어 성서의 판본은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2>, <그림3>, 각 1852년과 1863년의 역본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1852년 대표자역본을 ‘대표자역’, 브리지맨과 컬버트슨의 역본을 ‘BC역’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현대에도 절대 신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다른 중국어 성서가 모두 사용된다.

중국어 성서의 문체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문어체로 쓰여진 성서

7) 히로 다카시(廣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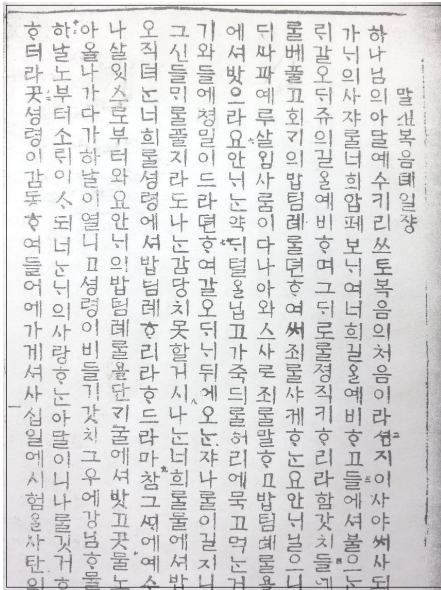
8)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라는 선교 단체에 속했던 인물임.

9)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선교 단체에 속했던 인물임.

10) 에비자와 아리미치(海老澤有道), 『일본의 성서』 (동경: 講談社, 1989),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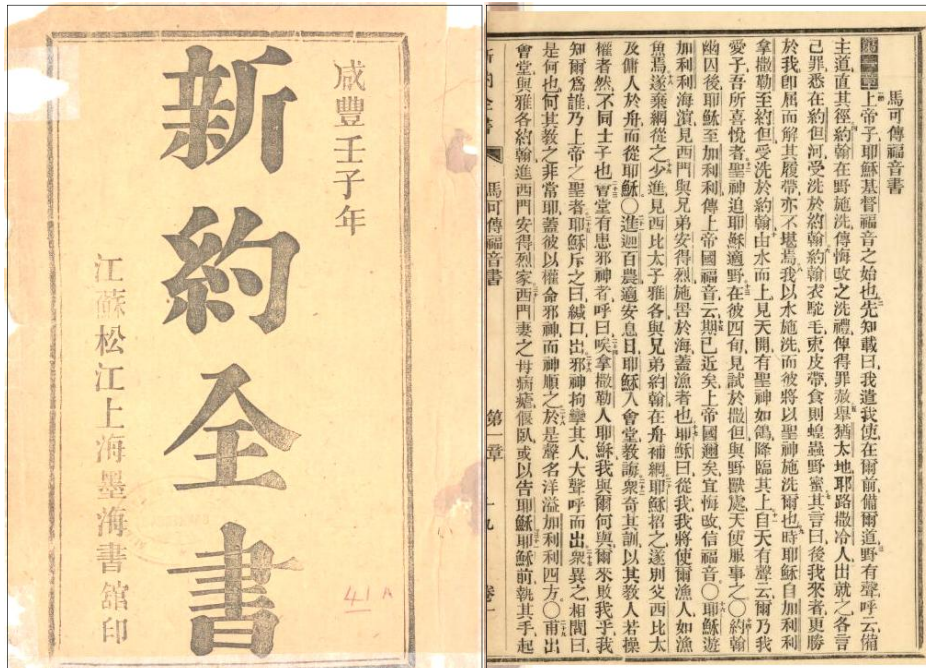
11) ‘上帝是造化天地的’는 ‘God creator of heaven and earth’라고 뜻풀이하였다. John Ross, *Mandari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97.

를 ‘문리(文理)체’라 부르고, 그보다 좀 더 쉬운 문체를 ‘천문리(淺文理)체’, 구어체를 ‘백화(白話)체’라 하여 분류한다. 대표적인 두 중국어 성서인 대표자역과 BC역의 문체는 문리체이므로 통칭하여 ‘문리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성서 역의 연구에서 이 두 성서를 구별하지 않고 문리역이라 통칭함으로 인한 선행 연구의 오류가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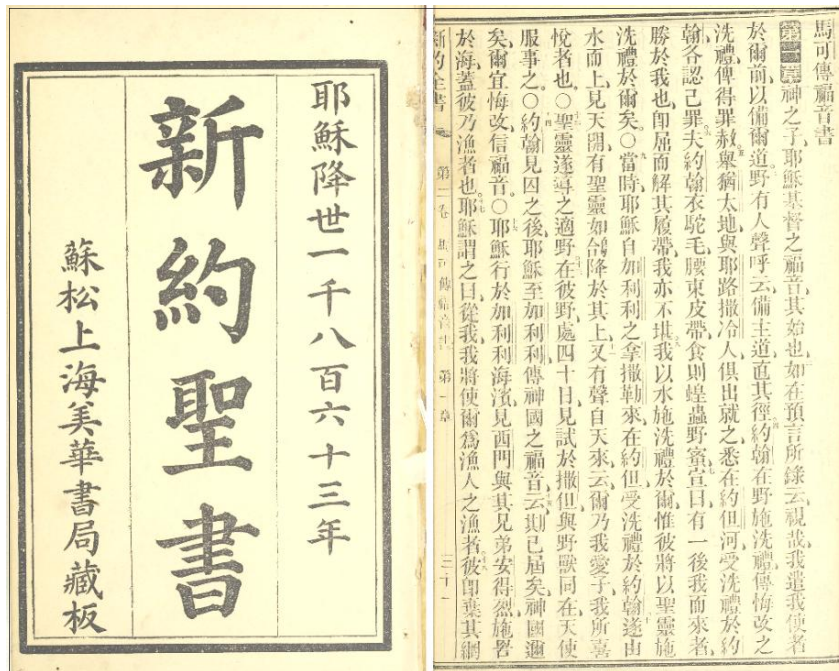
<그림1>  
『예수성교전서』의 마가복음의 첫 쪽  
(대한성서공회의 영인본)

<그림2> 대표자역의 표지와 마가복음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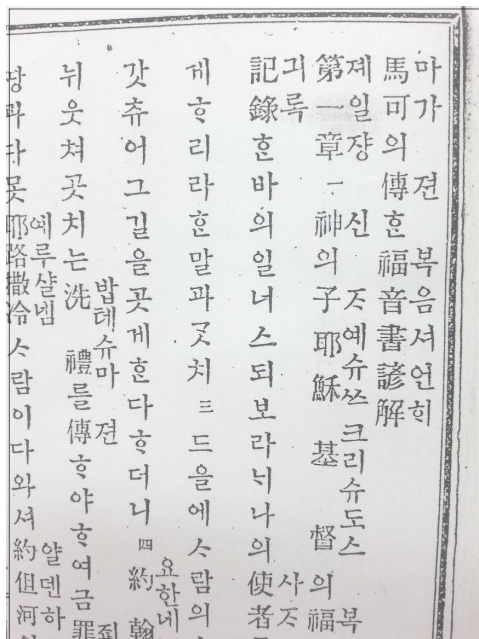
<그림3> BC역의 표지와 마가복음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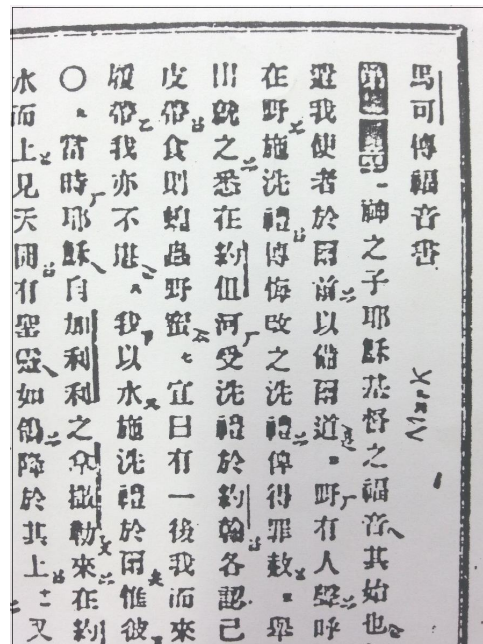
메이지(明治)학원대학도서관,

<http://www.meijigakuin.ac.jp/mgda/bible/search/book.php?id=1861ntbrg>

<그림4> '이수정(李樹廷)역' 마가복음 첫 장



<그림5> 이수정의 구결본 『新約聖書馬可傳』 첫 장



(대한성서공회의 영인본)

로스역과 중국어 성서를 검토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즉, 또 다른 조선어 성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본다면 로스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로스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수정(李樹廷, 1842-?)이 BC역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로스가 번역한 몇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 대상으로 할 이수정의 번역이 마가복음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은 19세기 말 조선의 학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동경대학의 전신인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사에 재직하였고 미국 선교사 루미스(Henry Loomis, 1839-1920)가 성서 번역을 의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수정역을 그 저본인 BC역과 비교한 결과는 로스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림4>는 미국성서협회의 주도로 이수정이 번역하여 1885년 출판한 마가복음<sup>12)</sup>이다. 이수정역은 BC역을 저본으로 하여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하였다. 이수정역이 출판되기 한해 전에는 BC역을 이용하여 그 여백에 구결로 토를 단 구결본인 『新約聖書馬可傳』(<그림5>)이 출판되었다. 이수정은 제3차 수신사(修信使)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입국한 후 일본에 거주하면서 번역에 임했다.

비교하는 어휘는 부사로 한다. 로스역에서 부사를 추출하여 두 중국어 성서와 비교하고, 이수정역에서 사용된 부사를 BC역에서 살펴본다.

줄고<sup>13)</sup>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용언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주된 대역본을 알아내기에 부족했다. 낯선 문화와 사상을 담은 핵심적인 어휘는 두 중국어 성서를 면밀히 조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하다’ 용언의 어휘를 번역하기 위해서 복수의 자료를 검토하여 가장 좋은 번역어를 결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때, 로스역의 핵심적인 종교 어휘는 축어역되었음을 줄고<sup>14)</sup>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永生하다’와 ‘悔改하다’는 익숙하게 쓰여진 조선어 어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자어+하다’로 번역했다. 이 두 용언은 이수정역에 ‘長生을 잇는 일’(막 10:30)과 ‘뉘웃고 곳쳐’(막 1:15) 등으로 풀어서 새겨진 점과 사용 예를 사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보아 사용되지 않는 어휘였다 하겠다. 로스역이 어

12)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필자가 사용한 판본은 대한성서공회의 영인본이며 편 의 상 ‘이수정역’이라고 하기로 한다.)

13) 김경연, “한자어+하다 용언을 중심으로 한 19세기말 조선어 어휘 연구”, 석사학위논문(간사이대학교, 2016).

14) Ibid.

휘사전으로 사용한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sup>15)</sup>에서 ‘悔改하다’를 찾아보면 ‘회개하다’와 ‘통회하다’가 있다. 반면, 성서 번역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된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 가톨릭교회의 전례서인 『성경직희광익』<sup>16)</sup>의 본문 누가복음 3:1-6을 살펴보면, ‘통회하다’<sup>17)</sup>임을 알 수 있었다.

히로 다카시(2005), 57-58에서 “어떤 경우에는 대표역의 한자어가 수용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브리지맨 역의 한자어가 수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 하며, “기독교 전문용어로 채택된 번역어의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한문 성서와 일치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3장에서는 부사를 검증하기 이전에 영어 성서와의 대역 관계를 알아보겠다. 두 중국어 성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생략된 절이 있는데, 영어 개정역 (Revised Version)과 일치했다. 로스역의 저본인 그리스어 성서와의 비교가 필요하겠으나 필자는 그리스어를 읽지 못하므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 3. 첨삭된 부분의 비교: 로스역과 중국어 성서 및 영어 성서

본 장에서는 로스역과 영어 성서 ‘RV’를 제시한다. KJV는 두 중국어 성서의 저본이므로 부기하여 제시한다. 또한 참고로 이수정역을 부기한다. 로스역과 중국어 성서가 상이한 다섯 곳에서 로스역과 RV가 일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영어 성서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RV는 <http://www.bible.com>에 공개된, 1885년에 구약과 같이 완결된 RV1885으로 한다. KJV는 <http://www.biblegateway.com>에 공개된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으로 한다.

하나, 마가복음 1:2에서 로스역과RV는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로스역	선지 <u>이사야</u> 써사되
RV	Even as it is written in <u>Isaiah</u> the prophet,

15) F. C. Ridel, 『韓佛字典』 (Japan: 파리외방전교회, 1880)을 어휘 순으로 편집한 이은령, 김영주, 윤애선,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서울: 소명출판, 2014)을 사용함.

16) 『성경직희광익』은 한문전례서인 『聖經直解』와 『聖經廣益』을 엮어서 179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최창현(崔昌顯)이 처음으로 한글로 썼다. 그 후에도 많은 필사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정수, “머리말”, 작자미상, 서정수 편, 『성경직희광익 I』,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1984).

17) 작자미상, 서정수 편, 『성경직희광익 I』,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1984), 56.

KJV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대표자역 先知載曰  
 BC역 如在預言所錄云  
 이수정역 豫言者(예언자)의 記錄(기록)은 바의 일너스되

둘, 마가복음 3:15 KJV의 ‘to heal sickness’이며, 중국어 성서의 ‘醫病’이 로스역과 RV에는 없다.

로스역 또 귀신 쫓는 권세를 잇게 하니  
 RV and to have authority to cast out devils:  
 KJV and to have power to heal sicknesses, and to cast out devils  
 대표자역 有醫病逐鬼之權  
 BC역 且有醫病逐鬼之權  
 이수정역 또 病(병)을 醫(의)하며 鬼(귀)를 逐(축)하는 權(권)이 잇게 하시니

셋, 마가복음 6:11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유가 로스역과 RV에는 없다.

로스역 너희를 디접지 안으며 너희를 듯지 온는 자 잇거던 거기를 나갈 썩에 너희 발에 몬주를 덜어써 간증을 삼으라 하니  
 RV And whatsoever place shall not receive you, and they hear you not, as ye go forth thence, shake off the dust that is under your feet for a testimony unto them.  
 KJV And whosoever shall not receive you, nor hear you, when ye depart thence, shake off the dust under your feet for a testimony against them.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Sodom and Gomorrha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대표자역 有不接爾不聽爾者,去之日,拂去足塵,以爲衆證,我誠告爾,當審判日,所多馬,蛾摩拉之刑,較斯邑尤易受也。  
 BC역 有不接爾不聽爾者,離彼時,則拂去爾足下之塵,以爲衆證。我誠告爾,當審判日,所多馬與蛾摩拉之刑,較斯邑猶堪忍焉。  
 이수정역 너를 붓치지 아느며 너를 좃지 안는 자 잇거던 거기 썩날 썩 네 발아리 몬지를 썩러바려써 모든 이의게 증험을 삼으라 너 진실노 너 다려 이르노니 審判(심판)하는 날을 當(당)하여 소도마와 다못 고모라의 형벌을 이 고을의 비하면 오히려 견디여 춤을 만 하리라 하시더라.



넷, 마가복음 9:44와 9:46이 로스역과 RV에는 없다.

다섯, 마가복음 15:28이 로스역과 RV에는 없다.

이상에서 로스역은 내용의 구성이 RV와 동일하며 중국어 성서와는 상이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로스역의 저본을 중국어 성서라고 할 수는 없다.

## 4. 조선어 성서의 부사를 중국어 성서와 비교

### 4.1.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사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부사를 검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그 독립성에 있다. 부사  
와 함께 수식언의 하나인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번역시에 침삭된다  
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생기므로 침삭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부  
사는 그에 비해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부사는 번역할 때 다른 품사에 비해  
서 침삭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명사/대명사/수사와 같은 체언, 동  
사/형용사와 같은 용언은 사건어이므로 침삭이 어렵다. 감탄사와 같은 독  
립언도 침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본 장에서는 로스역에 사용된 부사를 대표자역 및 BC역과 비교해서 해  
당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간단히 나누었다. 같은  
방법으로 이수정역 에 사용된 부사도 그 저본인 BC역에서 알아보아 로스  
역 부사의 검증 결과와 비교했다.

부사의 검증 범위는 부사만으로 하며 부사성 어휘는 제외했다. 부사는  
'매우 바쁘다.'의 '매우'처럼 접사나 조사를 가지지 않아 활용하지 않는 통  
사의 하나이다. 부사는 접사나 조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부사화 어미 '히(이)'와 결합한 '깨끗  
이'는 검증에 사용하지만 부사성 어미 '-게'가 결합된 '깨끗하게'(이수정  
역, 막 1:40)는 사용하지 않으며, '혹(或)'은 사용하지만 조사 '이'가 결합된  
'혹이'(이수정역, 막 2:18)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 조선어 성서에 대한 어휘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더 밝혀 둔다. 앞에서  
도 밝힌 것처럼 조선어 성서에서 부사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살펴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조선어 성서에서 부사로 쓰이고 중국어 성서에서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쓰인 경우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어 성서에서  
동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된 어휘를 부사로 번역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업  
수이 여기다'(로스역, 막 10:47)는 동사 '忽'에서 번역되었는데, 이처럼 '-히  
(이) 여기다'는 많은 용례가 있다.

반대로 중국어 성서에서 사용된 부사가 조선어 성서에서는 동사 또는 형용사등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두 중국어 성서에서 ‘大平息’의 부사 ‘大’는 ‘크게 은정 흐느니라’(로스역, 막 4:39), ‘크게 平息(평식) 흐느니라’(이수정역 막 4:39)처럼 형용사 ‘크게’로 번역되었다.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크게’는 부사의 기능을 하며 의미도 그러하다. 형태에 있어서는 어미의 결합이 자유로워 형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부사로 보지 않는다. 부사화 어미로는 ‘-이/히’, ‘-오/우’, ‘-아/어’, ‘-사리’, ‘-로’, ‘-내’, ‘-조’가 있는데, 부사화 어미를 결합시켜서 부사로 파생된 부사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미루어 두겠다.

또, 부사 ‘則’ 은 조선어에서는 어미의 형태로 번역된 경우도 많이 보인다. 본문 가운데 ‘다빛이 스사로 쥬라 칭호여신즉 엇지 그 후예가 되랴’(로스역, 막 12:37), ‘넙피 뵈죽’(로스역, 막 13:28)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중국어의 어휘는 접사나 조사를 가지는 조선어로 번역되면서 문장 내에서 그 기능과 형태가 바뀌었다.

다음으로 부사 가운데서 용언의 뜻을 부정하는 부정부사는 검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안 보다’, ‘못 가다’의 ‘안-’, ‘못-’을 가리킨다. 두 군데의 의도된 번역이 있는데, 그 외에 의도 없이 부정을 긍정으로 번역하거나 긍정을 부정으로 번역한 예는 보이지 않으므로 필요 이상의 검증은 생략했다.

다음으로 지시부사를 거론하지 않는다. 로스역은 격조사의 생략이 이수정역에 비해서 많다. 우리는 말할 때 ‘모두가 집에 갔어요.’를 ‘모두 집에 갔어요’처럼 주격조사를 자주 생략한다. ‘더 즉시 그물을 버리고’(로스역, 막 1:18)는 ‘그 스람이 即時(즉시) 그물을 버리고’(이수정역, 막 1: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스역에서 ‘더’는 주격조사를 생략한 지시부사처럼 보이지만 구어체로 쓰였으므로 생략된 것이다. 이수정역에는 ‘그 사람이’와 같이 주격조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로스역은 격조사를 생략한 예가 이수정역에 비해서 많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연구하기로 하고 그 예문의 일부를 제시한다. 이수정역에서 ‘門徒(문도) | ’(막 8:14), ‘예수쓰 | ’(막 8:15), ‘弟子(제자) | ’(막 8:16), ‘예수쓰 | ’(막 8:17)와 같이 중세 조선어의 주격조사 ‘-가’ 에 해당하는 ‘| ’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로스역에서는 ‘데자’(막 8:14), ‘예수’(막 8:15), ‘데자’(막 8:16), ‘예수’(막 8:17)처럼 주격조사를 생략한 것을 볼 수 있다. 로스역에서 지시부사를 거론하지 않으므로 이수정역 에서도 거론하지 않는다.

또, 중국어 성서에 사용된 한자의 의미와 사용 예의 확인에는 사전을 사용했다. 중국어는 문헌을 통해서 문어체의 형태로 한반도에 전해지거나 인

적 교류를 통해서 구어체의 형태로 전해져 조선어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중국어가 조선어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전해졌는지 사전을 살펴 해당 어휘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면, “사로 혼나이 이스니”(로스역, 12:6)는 BC역에서 ‘猶有愛子一’, 대표자역에서 ‘有愛子一’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사로’는 ‘아직’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예문을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司射猶一个,去扑,與司馬交于階前(儀禮,大射).<sup>18)</sup> 본 예문에서처럼 시기가 훨씬 이른 문헌에서 보이는 어휘도 검출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조선어의 자유로운 어순을 인정한다. 조선어는 중국어나 영어와 달리 어순이 자유로우므로 어순이 바뀐 문장에서 어휘가 검출된 경우도 인정한다.

#### 4.2. 로스역의 부사와 두 중국어 성서의 어휘 비교

검증 결과, 로스역에서 사용된 부사는 102종류, 사용된 용례 수는 738회 이었다. 이것을 두 중국어 성서와 어휘를 비교하니 대표자역에서 457회, BC역에서 612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어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대표자역 281회, BC역 126회로 나타났다. 즉, BC역에서 더 많은 대역 한자가 발견되었고, 대역 한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역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로스역은 BC역과 유사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로스역과 두 중국어 성서의 검증에 사용한 두 가지 분류 원칙을 밝혀 둔다. 먼저 대역 어휘의 분류 기준에 관해서인데, 로스역과 두 중국어 성서를 비교할 때, 한 쪽 중국어 성서역에서 사용된 한자가 더 분명하고 많은 사용예가 사전에서 확인될 때는 다른 한쪽의 성서 역에는 그 어휘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면, ‘글어나 감초지 못하더라.’(로스역, 막 7:24) 구절에서는 대표자역에서 ‘而’, BC역에서 ‘然’이 사용되었다. ‘그러나’의 의미로 사전에서 많은 사용예가 확인된 ‘然’이 검출되었으므로 BC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오직 안에 쫓이 업서’(로스역, 막 4:17)를 두 중국어 성서에서 살펴보면 BC역에서 ‘然’, 대표자역에서 ‘惟’이므로, 대표자역에 번역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두 중국어 성서 모두 해당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대역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면, ‘야곱과 요안너로 더부러’(로스역, 막 1:29)를 살펴보면 BC역에서 ‘偕’를, 대표자역에서 ‘與’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 몇 용례를 더 제시한다.

18) 단국대학교출판부 편, 『漢韓大辭典』 제9권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6), 243.

막 1:18	더 <u>즉시</u> 그물을 버리고 좃더라	卽(BC역), 遂(대표자역)
막 2:25	다빛과 <u>밋</u>	與(BC역), 及(대표자역)
막 2:26	<u>또한</u> 노나 좃는 자	且(BC역), 亦(대표자역)
막 4:2	<u>이여</u> 비사를 베플러	遂(BC역), 乃(대표자역)

아래에 로스역에서 살펴본 부사 어휘와 그 대역 한자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스역의 주된 대역 중국어 성서는 BC역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대역으로 제시한 한자어는 모두 BC역에서 발췌하였다. ‘공연이/공연히’처럼 이체 표기는 같이 제시했다.

ㄱ

각각---各, 간절이---切, 감히---敢, 갓가히---近, 갓치---同, 거의---瀕, 경히---輕, 고로---故/然卽/於是, 곳---遂/則/卽, 공연이/공연히---然, 과연---果, 곳건히---慎, 그러면\*, 그웁키---潛, 글어나---然, 괴기히---怪/奇, 괴이히---奇, 긴넉---永, 깃거---欣然

ㄴ

늘---常/恒, 능히---能, 니여---繼

ㄷ

다---皆/俱/悉/衆/亦/盡/咸, 다못---惟/但/第/復, 달니---他/別, 당당히---毅然, 더---加/愈/尤, 더부라---與/共/偕/同, 더욱/더욱---愈/尤, 더욱더---愈, 도둑(엇지)---何故, 도리어---轉, 두루---環/四周, 덕기---蓋/夫

ㄹ

마침/마참---適/當時, 만약---若/倘, 만이---衆(庶)/諸/多, 만일---或/若, 먼저/먼저---先, 맞당히---必/當/宜, 맞참넉---終, 멀니---遠/遙, 무론<sup>19)</sup>---蓋/凡, 문득---突, 밀이---試/預, 밋---及/又/與

ㅁ

바야흐로---方, 반다시---必, 발기/발키---昭然/明, 불넉---素, 분요이(우느냐. )---號, 비록---必/雖, 비르소---始/遂

ㅂ

사로---未/猶, 사사로히---竊, 삼가---愼/謹, 서로/스로/세로---相, 속키---速, 스사로---己/自/本, 시러곰 /시러금---得, 실노---誠/固, 심히---益/甚/太

19) 부사 ‘무릇’의 옛말

○

압셔---先, 어드러기---何, 어디---何, 어엿비(네기다)---憫/矜恤, 엄이/엄  
히---嚴, 업수이---忽, 엇지---何/何以/胡爲/何爲/如何, 오직---惟/但/必, 오  
히려---猶/尤, 원제---彼日彼時, 이(성령이라)---乃, 이여/이에---遂/則/乃/卽,  
이무---已/遂/則/乃/卽, 이잇고---少頃, 이제---今, 일즉---曾, 일즉이---平旦

ㄷ

자세이---仰, 자연---必, 잠시---暫/片時, 장너---將, 장차---將, 정이---精,  
조금---少, 좃너---從, 즉시---遂/則/乃/卽, 지극키---至

ㄸ

찰아리---寧, 참---蓋

ㄹ

편안이---安然

ㅎ

함씩/흠씩---共/相/同/偕/與/皆, 혼자/함자---獨, 허다이---衆, 혹---或

기타

또---又/且/後/而/則/亦/乃/復, 또한---且/亦/又, 썩---時已, 썰니---亟

로스역과 두 중국어 성서 그리고 영어 성서를 살펴보아 알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밝혀둔다. 먼저 로스역의 부사 가운데서 BC역에서 번역어를 찾을 수 없지만 용례 수가 눈에 띄게 많은 부사가 있다. ‘이여’와 ‘또’가 각각 48회, 70회 사용되었는데 각각 20회, 22회에 걸쳐 BC역에는 번역어가 없으나, 거의 대부분 RV에서 ‘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로스역이 조선어 번역자들의 손에 맡겨져 번역되지 않았고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번역 작업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공동 작업이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번역어 가운데 ‘고로’, ‘곳’, ‘다못’, ‘무릇’과 같은 고유어 문장 부사를 두 중국어 성서와 영어 성서에서 대역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조선어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곳’과 ‘다못’은 대역어가 없이 각각 10회, 8회 번역되었다. 이들 어휘가 번역어로서의 어휘를 넘어서 조선어로서 자연스럽게 쓰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무릇’을 예로 들면 ‘무릇 이거슨 너 열여서부터 직키엿너이다’(로스역 막 10:20)는 중국어 성서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단지 RV의 ‘All these things have I observed from my youth.’에서 어순을 바꾸어서 강조한 표현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 4.3. 이수정역의 부사와 BC역의 어휘 비교

검증 결과, 이수정역에서 사용된 부사는 131종류, 사용된 용례 수는 1,150회이었다. 로스역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부사가 많은 횟수 사용되었다. 1,150회 사용된 가운데 그 어휘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BC역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단 24회에 불과하였다.

ㄱ

가마니/가만이---竊, 가이/가히---可, 각각---各, 간절리---切, 감히---敢, 갑업시---至眞至貴, 갓치---同/偕/與/相, 겨우---甫, 결단코---必, 곳---卽/則/乃, 과연---果, 괴이히---異/怪, 그러나---然, 그러하---然, 그리하---여도---然, 그저---然, 극히---極, 급히---急/亟/疾, 괴위---既, 괴이/괴히---奇, 괴이히---奇, 괴특이---奇, 길넉---永

ㄴ

날노---日, 낫낫치---悉, 능이/능히---能

ㄷ

다---皆/盡/咸/俱/與/悉/已, 다만---但/第/惟, 다못---與, 다시---復, 단 > 이 (단단이)---愼, 달니---他, 더---加/轉/尤, 더부러---與/共/卽, 더욱---益/愈/尤, 덩히---精, 두루---遍/周, 드되여/되 > 여---遂, 덕기---蓋, 덕단이---甚, 덕저---蓋/夫

ㄹ

마치/맞치---若/如, 마춤/맞춤---終/卒, 만니/만이/만히---多/衆, 만닐/만일---倘/若/如, 맞당이/만당이---宜/當, 맞춤/맞춤---適, 먼저/문저---先/既, 멀니---遠/遙, 멀직이---遠, 모도---集, 무론---無論/不論, 무릇/무릇/무릇---凡/夫, 미리---預, 민망이---憫, 밋---及/乃, 밋우---甚

ㅁ

바로---則, 바야흐로---方, 반다시---必/則, 밋셔---已, 밝키---明, 본넉---本/素, 부디---謹, 분명이---明, 불상이---憫/矜, 비로쇼---始, 비록---雖,

ㅂ

삼가---愼/謹, 서로---相, 쇼연이---昭然, 스스로---自, 슬피---哀, 시러금---得, 신괴이/신괴히---奇, 심이---甚

ㅇ

아울너---并, 아즉---姑, 억지로---強, 얼마나---幾何, 엄이/엄히---嚴, 엇



지---何/胡爲/焉/豈/何以, 여상이---如常, 역시---亦, 연즉---然則, 영영---永,  
오식/오즉/오직---惟, 오히려---猶/尤, 왈---曰, 의연히---毅然, 이미---既/已,  
이상이/이상히---異, 이에---乃/於是, 이제---今, 일일리---一一, 일즉---曾,  
일즉이/일직이/일찍이---曾/嘗

ㄷ

잘---善, 장춧/장춧---將, 정히---正, 제제히---一一, 조금---些/稍/少, 조  
금더---少, 종용이---竊, 주양---常, 즉---卽/則/乃, 즉시---遂/卽/則/卽時, 지  
극히---至, 지금---今, 진실노---誠/固,

ㄸ

차라리---寧, 참아 ---忍

ㄹ

편안이---安然/安, 평명---平坦, 필련---將

ㅎ

하야금/하여금/햐야금/햐여곰---俾/使/令/致, 함과/함씩---偕/共/與/同,  
항승/항상/항항---恒/常/恒常, 헤피---糜, 혹---或/若, 혼즈---獨, 홀노---獨,  
홀련---倏, 혼가지로---偕, 혼번---一, 힝혀---愼

기타

사로---別, 쯤---且/又, 쯤흔---且/亦/復/又, 쯤다---皆

한자와 대조해 보았을 때 조선어의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다못’은 이수정역에서 ‘-와(과) 다못’처럼 사용되었고, 대역어는 ‘與’인 것으로 보아 의미는 ‘A와 B’의 ‘-와-’이다. 사용 빈도는 20회이며, 이 가운데 5회는 한자 대역이 없다. 이수정의 출신지가 전라남도이므로 그 방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을 살펴보면, 전남방언이며 ‘다만’의 뜻으로 풀이하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은 但/第/惟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로스역에서는 ‘다못---惟/但/第/復’로 나타났으므로 ‘다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추출된 부사는 의미, 음운과 형태면에서 19세기 말 조선어의 경향을 알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연구의 과제로 하겠다.

## 5. 결론

로스역에 사용된 부사를 두 중국어 성서와 비교한 결과 로스역의 대역으

로 주로 사용된 중국어 성서는 1863년 브리지맨과 컬버트슨이 번역 출판한 성서라 하겠다. 그 이유는 로스역에서 사용된 부사는 102종류, 사용된 용례 수는 738회 인데, 두 중국어 성서와 어휘를 비교하니 대표자역에서 457회, BC역에서 612회 검증되어 BC역에서 더 많은 어휘의 한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 어휘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는 대표자역 281회, BC역 126회이다. 즉, 대표자역은 BC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횟수에 걸쳐서 로스역과는 다른 뜻의 한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로스역은 BC역과 유사도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수정역은 부사를 1,150회 사용한 가운데 그 어휘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저본인 BC역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단 24회에 불과하였다.

로스역은 3장에서 침삭된 내용을 비교한 결과 중국어 성서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 이수정역에 비해서 중국어 성서의 영향이 현저히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로스역은 전적으로 중국어 성서의 영향 아래에서 번역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로스, 초기 성서, 중국어 성서, 한글 성서, 이수정.

John Ross, Macintyre, First Korean Bible, Jutei Ri, Bridgeman.

(투고 일자: 2019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로스, 존, 『말코복음』, 중국: 문광서원, 1887.
- 이수정,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 일본: 미국성서공회, 1885.
- 작자미상, 서정수 편, 『성경직히광익 I』,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1984).
- 필사자불명, 『성경직히광익』, 출판사불명, 1861.
- Bridgman, E. C. and Culbertson, M. S., 『新約聖書』, China: 美華書局, 1863.
- King James Version(1611), <http://www.biblegateway.com>.
- Medhurst, W. H., 『新約全書』, China: 墨海書館, 1852.
- Revised Version(1885), <http://www.bible.com>.
- Webster, J.,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 D.”,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 Free Church of Scotland* 46 (1915), 394.
- 김경연, “한자어+하다 용언을 중심으로 한 19세기말 조선어 어휘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간사이대학교, 2016.
- 다카시, 히로(廣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5.
- 단국대학교출판부 편, 『漢韓大辭典』 제9권,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6.
- 에비자와, 아리미치(海老澤有道), 『일본의 성서』, 동경: 講談社, 1989.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이은령, 김영주, 윤애선,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서울: 소명출판, 2014.
-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개신교(1)”, 『기독교사상』 397 (1992), 116-134.
- Ross, John,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 Ross, John, *Mandari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Abstract>

**John Ross's Chinese Bible Major Source Discovered  
by Researching Adverbs**

Kyon-yon Kim

(Kans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is research paper is an analysis of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from Chinese into the Korean language, which bega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wo Chinese Bibles from the King James Version will be considered — Medhurst's translation in 1852 and Bridgman and Culbertson's translation in 1863.

In 1885, Ri Jutei translated from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into Korean.

In 1887, John Ross also made a translation into Korean from either of the two translations. The Chinese Bible that Ross used as his major source has not been discovered.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discern which Chinese Bible Ross used mainly for his Korean translation.

John Ross arrived in Manchuria in 1872 from Scotland, and translated and revised the New Testament from 1882 to 1887, focusing on the four Gospels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Ross translated from Greek and English into Korean, but for some particular words, from Chinese into Korean. Ross had the help of J. Macintyre and some native Korean speaker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dverbs Ross used in his translation. The first part of this project is to compare the adverbs Ross used to the two Chinese Bibles. The second part of the project is to compare the adverbs Ri used to Bridgman and Culbertson's translation.

The comparison showed that Ross used 102 different adverbs 738 times. Ri used 131 different adverbs 1,150 times. Ross translated adverbs 612 times from Bridgman and Culbertson's translation, and those from Medhurst's 456 times. Therefore, the major source that Ross used was the Chinese Bible translated by Bridgman and Culbertson. Ross translated from the Greek Bible and English Bible, and for certain words, Ross used Bridgman and Culbertson's translation more than Medhurst's translation.